

2022년도 제1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 개요

1. 세 입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과 같은 103억 1천 4백만원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10,314	10,314	10,314	-	-	-	-
세외 수입	경상적	8,559	8,559	8,559	-	-	-
	임시적	955	955	955	-	-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302	302	302	-	-	-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492	492	492	-	-	-
보전 수입등	보전수입등	6	6	6	-	-	-

2. 세 출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207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200억 2천만원 대비 0.6%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20,020	120,020	120,714	693	693	0.6	0.6	
행정관리	소 계	120,020	120,020	120,714	693	693	0.6	0.6
	행정운영경비	711	711	711	-	-	-	-
	재무활동	9	9	9	-	-	-	-
	사업비	119,300	119,300	119,993	693	693	0.6	0.6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2 예산		2022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7,349	7,349	8,042	693	693	8.6	8.6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7,349	7,349	8,042	693	693	8.6	8.6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207억 1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200억 2천만원 대비 0.6%(6억9천3백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증액 1건(6억9천3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20,020	120,020	120,714	693	693	0.6	0.6	
행정 관리	소 계	120,020	120,020	120,714	693	693	0.6	0.6
	행정운영경비	711	711	711	-	-	-	-
	재무활동	9	9	9	-	-	-	-
	사업비	119,300	119,300	119,993	693	693	0.6	0.6
교 부 금	-	-	-	-	-	-	-	-

-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조기 추가경정예산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증액 편성이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와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2. 3.17. 참조.

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추경...민생회복방역지원에 신속투자

- 2년 만의 결산 전 조기 추경...「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일 시의회 제출
- ▲민생·일상 회복 ▲방역 ▲안심·안전 3대 분야 중점투자·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 교부
-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예산 편성, 어린이집 등에 '자기검사키트' 530만 개 무상지원
-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모아·상생주택 등 공급모델 다양화로 서민주거 안정

□ 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국고보조금(89억 원) ▲세외수입(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한다.

*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 원 포함 시 추경규모는 1조 3,850억 원

□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초를 이어가면서 ①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②방역(2,061억 원) ③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 서울디지털재단(이하 “디지털재단”이라 함)은 관련 법령(「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디지털재단 정관」 제2조(목적) 재단은 「민법」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디지털재단 개요 〉

- 기관목적 :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복지 증진 및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트움 16층(1,738㎡)
- 설립일 : 2016. 6. 1.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에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조례(「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디지털재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에 출연동의안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는바,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 또한,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함에 따라 출연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관련 예산의 사장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향후에는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및 관련 사전절차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2022년도 서울시 출연금 73억 4천 8백만원 대비 8.6%(6억9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시민 체감 서비스 기획 및 안전한 메타버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시민의 중심이 되는 메타버스 서울의 생태계 조성,
 “어디나 지원단” 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8,041,862	7,348,567	693,295
출연금	8,041,862	7,348,567	693,295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 연 금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 서비스 기획 = 400,000천원
	-메타버스 서울 시민 활용 방안 도출 및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전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63,430천원 63,430,000원
	-메타버스 트렌드 분석 및 공유 = 2,500천원 2,500,000원
	-시민 체감 서비스 발굴·기획 = 203,400천원 203,400,000원
	-‘메타버스 서울 서포터즈’ 운영 방안 기획 = 24,800천원 24,800,000원
	-‘메타버스 서울 페스티벌’ 개최 = 105,870천원 105,870,000원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 293,295천원
	-어디나지원단(150명) 기획·운영·관리 = 198,095천원 198,095,000원
	- 콘텐츠 개발·시스템 유지보수 = 95,200천원 95,200,000원
	증감사유
○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 서비스 기획 신규추진 ○ 어디나지원단 강사·교육생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액 - 교육 대상자 : '21년 8천명 → '22년 2만명 확대	

- 하지만,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사업의 증액 편성은 2022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심사시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등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개선이나 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다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시기적으로 적정한 예산의 편성인지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2년도 본예산(안), 확정예산,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확정예산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8,804,467	7,348,567	8,041,862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 서비스 기획	400,000	0	400,000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1,100,000	600,000	893,295

- *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 서비스 기획” 사업명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 당시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기획”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나 유사한 사업으로 보임.
 - **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기획’ 400,000천원 전액 감액,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는 전년(600,000천원) 수준으로 감액하여 확정되었음.
- 먼저,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 서비스 기획(신규)” 사업은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의 시민 체감 서비스 기획 및 안전한 메타버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시민들이 메타버스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획 및 시민 참여 행사 운영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메타버스 서울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 또는 그 이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가 합쳐진 것으로, ‘초월적 세상’으로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학교·회사·공연장·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온라인에 입체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하여 입장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가상공간을 말함.

- 동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심사시 “디지털재단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메타버스 팀을 신설했는데, 재단은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설계나 계획에 대해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없음에도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결정되는 사업만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 이는 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안고 있던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부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는 것이라고 지적과 함께 4억원의 예산이 전액 감액되었는바, 지난 본예산 심사시 사업과의 차이 등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민활용(신규)

사업목적

-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 서울’ 구현
-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시민 눈높이를 맞춘 메타버스 대시민 서비스

사업내용

-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
 -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운영 및 이용자 윤리·안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메타버스 서울 가이드라인 2종〉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 기획·구축·운영·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메타버스 서울 윤리 대원칙 및 안전, 이용자 행동 수칙 수립·활용

-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체감 서비스 발굴·기획

① 비윤리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AI기술 도입

- ▶ 욕설, 혐오 표현, 성추행, 비속어 등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시알고리즘 개발

② 윤리 가이드라인 튜토리얼 및 학습 콘텐츠 개발

- ▶ 윤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가이드 튜토리얼을 구축하고 건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습 콘텐츠 구현

③ 메타버스 서울 활성화를 위한 시민 체험용 콘텐츠 개발

- ▶ 메타버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체험형 콘텐츠(전시, 체험형 가상공간 등)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메타버스 서울 페스티벌(시민 공모전) 개최 및 서울 서포터즈 운영

- ▶ 메타버스 서울 가상공간을 활용한 시민 직접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활용에 따른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보완 등 환류 추진

※ 스마트도시정책관, 2022. 3. 25. 별도 제출자료 참조.

-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아바타 간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하는 등¹⁾ 메타버스 내에서 다른 사람 아바타의 사적인 공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 다른 사람의 아바타에 폭력적 행동을 하는 문제, 아바타가 가상공간의 사물을 훼손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 특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메타버스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및 비윤리 행위 모니터링 AI기술 개발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운영에 앞서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1) “메타버스 너무 좋아” ...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4가지, 중앙일보 2022. 3. 7.자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414>, 최종방문 2022년 3월 24일); 가짜 아바타?... 메타버스 안전지대 아니다, 디지털타임즈 2022.2.15.자 참조(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21602101131076001, 최종방문 2022년 3월 24일).

- ※ 비윤리 행위 모니터링을 위한 AI기술은 욕설, 혐오 표현, 성추행, 비속어 등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AI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에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 ※ 또한, 지난 1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114358, 김영식의원 등 10인)은 관련 산업, 서비스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7조(이용자의 행동강령)는 메타버스 서비스제공자가 약관, 정책 등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메타버스 내의 질서가 유지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메타버스 내의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이용자는 행동강령에 동의하고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세부사업 중 ‘시민 체감 서비스 발굴·기획(2억3백만원)’ 사업은 비윤리 행위 모니터링 AI기술 개발(1억3백만원)과 튜토리얼 체험 콘텐츠 개발과 시민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1억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재단은 AI기술과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인력이 없음에도 외부용역 없이 AI기술과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시민 체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와 편성 예산(안)(2억3백만원)이 사업 내용에 비해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 적절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세부사업 중 ‘메타버스 서울 서포터즈’ 운영, ‘메타버스 서울 페스티벌(시민 공모전)’ 개최 사업의 경우에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울’ 1단계 플랫폼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나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메타버스 서울’ 1단계 플랫폼은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오픈하지만 12월에 구축 완료 예정인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메타버스 서울’ 1단계 플랫폼 구축 이후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현재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용역”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2-536호)를 내고, 입찰참가등록을 3.18(금) ~3.22(화)을 받고,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을 끝내고 제안서 평가 중이고, 3월 말 업체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스마트도시정책관 메타버스서울팀, 2022. 3. 22. 유선통화로 확인하였음).

○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2. 2. 참조

1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2.12.30.까지
- 사업비 : 금 1,997,9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일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비대면 확대로 가상융합기술이 사회 전반 **확보**가치 창출 전망
 - 글로벌 가상융합 시장 지속 성장 전망(시장조사기관 IDC, '20.6.)
 - '19년 78.9억달러('19) → '24년 1,368억달러로 연평균 76.9% 성장 전망
- 뉴노멀 시대 MZ세대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메타버스 서비스 급부상
 - 디지털 이용자가 수동적 수요자에서 능동적 콘텐츠 창작의 주체로 성장
 - 메타버스가 인터넷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이 될 것(20.10. 엔비디아 CEO Jensen Huang)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비대면 시대가 급속 도래함에 따라 시민 및 외국인과의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
- 사공간 제약, 언어 장벽 등 현실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활용 및 아동,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 서비스 개발 지원 가능
- 게임 및 지속적인 이벤트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몰입을 극대화하는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정에 대한 시민제감 향상 제고

3. 사업범위

- 시정 메타버스 운영 인프라 '메타버스 서울' 기반 구축
 - 분야별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 실시간 메타버스 공간 구성 및 아바타 시스템 개발 적용
 - 메타버스 서울 콘텐츠 및 회원 통계관리를 위한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 서울시 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체계 구축
 - 메타버스 서울 기술연계 관련 가이드 마련 등
- 메타버스 서울 메인 맵 및 게이트 공간 구성
 -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빠르게 파악·이동할 수 있는 전체 맵 구성
 - 메타버스 서울의 관문이자 가상 세계의 랜드마크, 서울시청서울광장 구현
- 메타버스 서울 분야별 서비스 구현
 - (경제)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기업 투자청 조성
 - (교육) 청소년의 비대면 상담을 위한 아바타 가상 상담실 구축
 - (세무) 서울시 지방세 상담 및 교육을 위한 택스 square 구축
 - (행정) 메타버스 민원서비스 구축
 - (공공) 메타버스 회의실/컨퍼런스 서비스 구축
- 메타버스 서울 '시민 참여행사' 개최 지원
 - 시민 참여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공모전
- 메타버스 서울 향후 발전방안 및 로드맵 수립
- 메타버스 서울 활성화 및 대시민 홍보 추진 등

4.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비대면 소통의 장으로 활용
- 사공간 제약없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몰입감이 높은 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로 시정에 대한 시민제감 향상

○ 다음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의 증액 편성은 2021년도 교육 결과 약 1만명 수준의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재는 예상 수요의 약 2배를 초과하는 등 시민 수요·호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년도에는 교육 문의 전체 수요 충족을 위한 교육 운영 시간 및 기간 확대를 위하여 2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디지털재단은 1:1 교습인 ‘어디나 지원단’ 교육 대상을 기존 1만명에서 1만 8천명으로 확대하고, 이와 별도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2천명을 추가 교육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본 교육사업에 대한 수요 급증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어르신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급증됨
- 해당 사업을 통해 ‘21년도 전년대비 381% 이상* 교육성장을 달성함

핵심성과 지표	세부내역		‘20년	‘21년	전년대비 증감율*
어르신 디지털교육(명)	지표정의 및 내용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수혜자 수	2,183	8,323	381%

본 교육사업에 대한 ‘22년도 수요증가 예측 사유와 타당성

- ‘21년도 교육결과 약 1만명 수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예상 수요의 약 2배를 초과하는 등 시민 수요·호응도가 높은 상황

* ‘21년도 교육생 모집을 위한 콜센터 시범운영 결과 ⇒ 약 8천여명의 교육응대로 수요증가 확인

〈수요증가 예측 근거에 따른 ‘22년도 목표치 설정〉

(단위 : 명)

교육생	유입경로별 구분	‘21년 실적	‘22년 목표	목표설정 근거	예산구분
오프라인	생활거점 연계 (복지관 등)	6,294	10,000	(‘21) 7개월 운영, 월평균 약 900명 교육 (‘22) 8개월 운영, 월평균 약 1,250명 교육 ⇒ 전년대비 158% 목표 상향	기 확정예산 (6억)
	일반교육 연계 (콜센터 활용)	1,145	*8,000	(‘21) 3개월 시범운영, 월평균 약 380명 교육 (‘22) 8개월 집중운영, 월평균 약 1,000명 교육 ⇒ 전년대비 698% 목표 상향	
온라인	유튜브 교육 등	884	2,000	(‘21) 1개월 시범운영, 유튜브 활용 총 8백여명 교육 (‘22) 3개월 집중운영, 온라인콘텐츠 개발을 통한 유튜브 등 에듀테크 활용 총 2천여명 교육 ⇒ 전년대비 226% 목표 상향	추가경정예산 (약2억9천)
합 계		8,323	20,000		

※ 서울디지털재단, 2022. 3. 23. 별도 제출자료 참조.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바,²⁾ ‘어디나 지원단’ 운영 및 기간 확대를 통한 교육 인원 확대는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로 매우 낮았고, 서울시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소유 비율은 66.9%이지만 사용에 있어서는 1위 문자·카카오톡(96.6%), 2위 사진·동영상(80.1%), 3위 인터넷 검색(67.5%), 4위 기본앱 이용(60.9%), 5위 유튜브(YouTube) 보기(57.3%) 순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난이도가 높은 앱 설치(18.7%)나 인터넷뱅킹(16.3%), 음식 주문(4.5%) 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서울복지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swf1004/222167035241>, 2022년 3월 24일 최종방문)

- 다만, 교육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디지털재단의 ‘어디나 지원단’ 사업 이외에도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디지털 배움터’ 123개소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바, ‘어디나 지원단’ 운영 이외에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증가한 교육 수요 충족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1 디지털 배움터 관리·운영 - 123개소

디지털 배움터 선정

○ 디지털 배움터 :

- 통신 환경, 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교육 인프라가 제공되는 생활 SOC 교육장
- (종 류) 주민센터, 평생교육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교육 기자재) 노트북, 키오스크*, 3프린터, 코딩교구 등

* 키오스크는 ①교통편 예매(KTX, 버스 등), ②음식 주문(햄버거, 커피, 식사류 등), ③영화 예매, ④정부서비스 이용 등 4종 이상의 콘텐츠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탑재

2) 비대면, 무인화가 상용화되어가는 현실에서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기존 전통적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동시에, 일반 이용자간에도 필요도와 활용능력, 관심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등 그 양상도 복잡해질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정보격차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소외현상 및 사회분열의 우려를 수반한다고 지적하였음(김나정, “비대면 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방안”, 『이슈와 논점』 제177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0. 12. 참조).

1. (총괄) 거점센터: 디지털배움터 총괄 운영·관리 역할 수행

- 총 25곳(서울 총괄 거점센터 1, 각 자치구별 거점센터 24)
- (교육장) 20명 내외 규모의 교육장 1개 이상(적정 거리 유지하며 최소 5인 교육)
- (디지털 체험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 구축

〈 디지털 체험존 〉

- 목 적 : 누구나 쉽게 디지털을 체험·실습해볼 수 있는 환경 제공
- 규 모 : 키오스크 1대, AI 스피커 1대, 태블릿 4대, 온라인 스튜디오 장비 등
※ 시·자치구 담당자 및 사업자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위 치 : 총괄 거점센터(구로 스마트 홍보관) 내 10평 내외

2. 일반 배움터 :

- (교육장) 10명 내외 규모의 교육장 1개 이상(적정 거리 유지하며 최소 5인 교육)
- (회의공간) 기초단체 지역 소관 강사·서포터즈 소그룹 회의, 필요시 온라인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 마련

○ 자치구별 디지털 배움터 분배 (*'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 자치구 정보화 교육 담당자 및 자치회관 담당자 대상 배움터 제출 요청
- 노인복지관(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 복지관(장애인자립지원과) 배움터 제출 요청
- 인구수*, 노인인구수에 따라 자치구별 배움터 지정(붙임 1)

□ 교육 과정

○ 기본 교육 과정 : 총 73개(7개 카테고리 신설) 교육과정

과 정	합계	기초	생활	심화
디지털 환경에 친숙해지기	16	5	5	6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습득하기	5	2	2	1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하기	6	2	4	-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기	16	9	3	4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하기	8	1	7	-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기	7	-	5	2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기	15	2	6	7
전체 교육과정	73	21	32	20

※ 스마트도시정책관, '22년 서울시 디지털배움터 사업 추진계획, 2022.2., 일부 재인용.

- 또한, 지난 본예산 심사시 “재단은 디지털격차해소 및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등 주로 교육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사업계획은 평생교육국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의 ‘디지털 문해교육’과 인생 이모작지원과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교육과 차별성이 없고,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는바, 당시 지적되었던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유사 사업들과의 차별화 여부, 재단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데이터리터러시(Data Literacy)”는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을 말함. 매 순간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담겨있는 의미를 빨리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은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생존요건으로 간주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디지털재단 출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과도한 집행 잔액(2019년 17억4천6백만원, 불용률 20%, 2020년 16억6천5백만원, 불용률 19%, 2021년 22억3천7백만원, 불용률 35%(잔여 이월액 집행 완료시 최종불용률은 14.5%(9억 2백만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 이는 재단 출연금이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사업 계획없이 성급한 사업계획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 당해 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집행현황 〉

(2022. 2. 28.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불용률)	불용사유
2019년	8,519,600	6,773,278	1,746,322(20%)	.이사장 공석,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외부인력 활용 축소 등에 따른 예산절감
2020년	8,720,029	7,055,202	1,664,827(19%)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및 회의 운영 축소 .경쟁입찰 확대에 인한 낙찰차액분 예산절감
2021년	6,230,634	3,993,394	2,237,240(35%)	.임직원 결원발생,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및 회의 운영 축소

〈 2021년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집행현황 〉

(2022. 2. 28.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불용률)	불용사유
계	6,230,634	3,993,394	2,237,240(35%)	
인건비	1,663,694	1,150,719	512,975(30%)	·임직원 결원발생,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경비	1,274,240	1,062,394	211,846(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및 행사 등 운영 축소 ·사무실 시설 및 비품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 등
사업비	3,292,700	1,780,281	1,512,419(4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및 회의 운영 축소 ·스마트시티센터 이전, CES 등에 따른 이월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 반납

* 2021년 출연금 집행현황은 이월액 집행을 포함한 2022년 2월말 현재 집행액이며, 이월·반납·미지급액 2,024,896천원을 제외하면 최종 불용액은 901,806천원으로 14.5%임.

-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디지털재단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사업이 출연사무에 부합하는 사업인지와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출연금 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문 속
------	-------	-------	-------